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1월 12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5장 8-12절

설교제목 : “너희의 회년이니”

회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이 지난 49년째부터 다음 해인 50년째를 회년이라고 합니다.(8-10절) 회년은 49년 7월 10일 속죄일에 시작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해지는 날입니다. 모든 부정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또한 회년이 되면 두 가지가 원상복구가 됩니다. 하나는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둘째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 해방됩니다. 회년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땅과 몸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해방입니다. 회년은 인간의 영혼과 몸의 현실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해방입니다. 회년은 하나님께서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말씀의 잘 듣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신15:4-5)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가난한 자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안식년과 십일조 제도 모두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회년 역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회년이 선포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노예나 종도 자유를 얻어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10절) 즉 회년의 해에는 누구든지 주인의 은사를 묻지 않고, 자기 본래의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년은 신학적으로 볼 때 에덴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년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수6:16) 여호수아 6:16에 나오는 나팔 즉 숫양의 뿔의 어휘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회년의 히브리어가 요벨입니다. 그런데 회년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합니까? 회년의 속죄일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면 회년이 선포됩니다.(9절) 따라서, 여리고성의 함락이 가져다 주는 신학적 의미는 바로, 가나안 땅에 회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적인 사회, 즉 회년의 정신이 성취되는 나라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년이 새 언약의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회년에 대한 설교입니다.(눅4:18-19)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는 이사야 61:1-2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의 설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이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사역의 핵심이 각종 억압과 굴레에서 사람들을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적 해방을 주는 회년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년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더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회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이 회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선, 회년이 반드시 속죄일에 선포되어야만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된 본성은 내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주인되려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죄성이 극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구속의 은총은 바로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회년의 선포가 속죄일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죄성을 극복한 자만이 이 땅에 참다운 회년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회년이 성취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행2:44-45, 행4:32) 더불어, 회년의 성취는 죄성을 극복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려는 삶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라는 참된 회년의 실천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행4:34-35)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기부와 구제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밭과 집을 팔아 기부하고, 그 판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부와 구제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주기도는 크게 6개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위한 두 번째 청원이 **‘우리에게 지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마6:12) 그런데 각주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빛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과중한 빛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는 악성부채 사회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빛진 자를 탕감해달라는 요청은 회년이 선포하는 땅을 잃고, 노예로 팔려간 자들의 해방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참된 회년은 예수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죄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기부와 구제의 삶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빛이 없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광공동체가 이러한 회년의 정신을 통하여 이 시대에 모든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회년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회년이 어떤 날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왜 회년이 속죄일에 시작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날 우리가 회년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구원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